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79> 선종 각 종파의 법맥과 가풍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사에서 '면벽구년(面壁九年)'을 하고 난 뒤에 성립된 선종은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粲)을 거쳐 4조 도신(道信) 스님으로 이어진다. 도신의 제자인 법융(法融) 스님이 공(空)의 원리를 깨달아 우두종(牛頭山)에서 선법을 선양하여 우두종(牛頭宗)이 생겼다. 그리고 5조 흥인 대사의 문하에서 북종과 남종으로 갈라져 신수 계통은 북종선이 되고 6조 혜능의 계통은 남종선이 되었다. 남종선(南宗)에서 다시 다섯 종파로 갈리게 되니 임제·위양·조동·운문·법안종이 생기게 된다. <선가귀감> 78장에서 서산 스님은 말한다.

조사 스님들의 종파에는 다섯 갈래가 있으니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이다.

에서도 임제종을 선법의 정통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6조 혜능 대사 이후에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하택파와 청원파로 나뉘어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시비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보조 스님이나 보우 스님이 대혜종교 스님의 화두법을 받아들여 '임제종풍'을 '조사선'의 최고봉으로 삼은 뒤 오늘날까지 임제종을 선법의 정통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조동종은 육조스님 아래에서 갈라진 결갈래이니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 석두 희천(石頭希遷 700-790), 약산 유엄(藥山惟嚴 751-834),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1), 동산 양계(洞山良价 807-869), 조산 탐장(曹山耽章 839-901), 운거 도응(雲居道膺 ?-902)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 5조 흥인 대사 문하에서 6조 혜능은 南宗禪으로 남종선은 다시 임제·위양종 등 5개 종파로 갈려

운문종은 마조의 결갈래로서 원왕 도오(天王道悟 748-807), 용담 송신(龍潭崇信 ?-?), 덕산 선감(德山宣鑑 780-865), 설봉 의존(雪峯義存 822-908), 운문 문언(雲門文偃 ?-949),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 천의 양회(天衣義懷 989-1060)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위양종은 백장의 결갈래로서 위산

영우(湧山靈祐 771-853), 양산 혜적(仰山慧寂 840-916), 향엄 지한(香嚴智閑 818-914), 남담 광용(南塔光涌 ?-?), 파초 혜정(芭蕉慧清 ?-?), 관산 경통(山景通 ?-?), 무착 문희(無著文喜 820-899)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법안종은 설봉의 결갈래로서 현사 사비(玄沙師備 835-908), 지장 계집(地藏桂琛 867-928),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 천태 덕소(天台德韶 891-972),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 용제 소수(龍濟紹修 ?-?), 남대 수안(南臺守安 ?-?)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임제종 가풍은 맨 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삼현(三玄)과 삼요(三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본 뜻을 판단하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용인지 백인지를 알아낸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보검으로 썩은 나무에 붙어사는 허깨비

들을 제거하고 위풍당당한 사자의 위엄으로 여우와 살랭이의 심장과 쓸개를 남김없이 찾아박힌다. 임제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조동종 가풍은 방편으로 오위(五位)를 열어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두루 잘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혜의 보검으로 썩은 나무를 잘라내어 묘하게 이 법이 잘 통하여 온갖 집착을 끊는다. 소리와 모습을 갖춘 이 세상이 있기 전 눈 가득히 빛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유리벽 속에 비친 바람과 달이다.

조동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佛祖未生空劫外 正偏不落有無機。  
부처님과 조사 스님 나오기 전 아무런 옛날부터 정(正)과 편(偏)으로 유(有)나 무(無)의 틀 속에 떨어지지 않을 않는다.

운문종 가풍은 칼날 위에 길이 있고 팍 막힌 철벽에는 문이 없다. 드러난 것들을 뒤집어 엎고 늘 일으키는 알음알이를 단숨에 잘라버린다. 번개처럼 빨라 미처 알아챌 수 없고 용광로처럼 뜨거우니 어찌 머물 수가 있겠느냐? 운문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拄杖子 跳上天 蓋子裡 諸佛說法。  
주장자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니 술잔 속의 부처님이 온갖 법을 설하도다.

위양종 가풍은 스승이 부르고 제자가 화답하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사는 것과 같다. 옆구리 글자도 높은 경계를 드러내고 방정실에서 학인들 공부를 점검함에 사자의 허리가 부러지는구나. 온갖 잘못된 견해를 한번에 끊어 내니 입이 두 개가 있어도 말할 혀가 없다. 구슬 속 아홉 구비 구불구불 난 구멍에 실을 꿰도다. 위양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斷碑橫古路 鐵牛眠少室。  
부러진 비석이 옛 길에 쓰러져 있고 무쇠 소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구나.

법안종 가풍은 말 속에 메아리가 있고 화두 속에 갈날을 숨기고 있다. 분별심이 사라진 해골들은 언제나 여기저기 널려 있고 본다 깨달음을 나타내는 콧구멍은 가풍을 불어 낸다. 바람 불어 소리 내는 나뭇가지와 환한 달이 비치는 맑은 시냇물은 잠든 마음을 드러내고 풀 뜯 대나무와 누런 꽃은 오묘한 법을 잘 밝힌다. 법안종의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風送雲巖歸去月 和流水過橋來。

바람 불어 뜬 구름이 봉우리로 올라가고 시냇물은 달을 품고 다리 밑에 흘러가네.

■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1>

### 정신분석과 불교-1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과정은 세 가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식(consciousness), 전의식(subconscious), 무의식(unconscious)이 그것. 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을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기억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감정이다.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으로서, 자신이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충동이 억압되어

하여 야직(俄執)의 근본이 된다.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은 모든 법의 종자를 감무리하고 일으키는 근본 심리 작용으로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된다. 아뢰야식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함장식(含藏識)'으로서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씨앗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무불식(無沒識)으로 인간이 죽어서 감각기능에 의거한 여섯 가지 식(六識)이 사라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윤회를 하는 동안 계속 남아

### 정신분석학에서 의식 세계는 태어난 이후 형성 불교는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되는 모든 법 포함

있다.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 이러한 의식 세계에 대해 매우 정교한 이론 체계를 세워 놓았다. 의식(意識)은 본래 불교 용어로서, 산스크리트어 마노-비주나나(mano-vijñāna)를 번역한 것이다. 인간은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마음(意)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六根)으로 빛(色)·소리(聲)·냄새(香)·맛(味)·닿음(觸)·현상(法)의 여섯 가지 대상(六境)을 인지한다. 이 가운데 앞의 다섯 가지 안·이·비·설·신을 의식의 식이라고 하여 '전 의식'이라고 하며, 의식(意識)은 제6식이라 한다. 이 유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7식' '말나식(末那識)'이라고 한다. 제7식은 사랑(思量)을 본질로 하는 식으로 '자아의식'이라고 본다. 아지(俄執)·아견(俄見)·아만(俄慢)·아애(俄愛) 등의 네 가지 번뇌와 상응

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이숙식(異熟識)으로서 함장된 여러 가지 인이 서로 뭉쳐서 익고 변하여 새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이다. 넷째는 여래장식(如來藏識)으로 여래의 종자를 지니는 기능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의식 세계는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의 세계는 현생은 물론 전생, 내생에까지 펼쳐져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갈등이 들어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제8 아뢰야식에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내용은 물론,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되는 모든 법의 종자가 함장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정신분석보다 훨씬 이전에 무의식의 세계를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무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펼쳐 놓았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언(眞言)다라니는 무엇일까? 정답은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수다라니를 영송해보지 않은 불자는 없을 것이다. 천수다라니는 대비심다라니, 대비주 등으로 불리

기도 한다.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삼매를 드러내는 다라니이다. 천수다라니는 당나라 가법담마(伽梵達磨)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懼大悲心大陀羅尼經)>에 모두 82구가 나온다. <천수경>이라 불리는 이 경의 또 다른 번역본으로는 당나라 지통(智通)의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과 보리류지(菩提流支)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모다라니신경>이 있다.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넓고

크고 결핍 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 설법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천수다라니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을 없애 주고, 정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 악업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모든 일을 성취 시키며, 모든 두려움을 떨리고 구하는 바를 만족 시키고자 설법한 것이다.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十方)의 불보살이 와서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강자연 기자



#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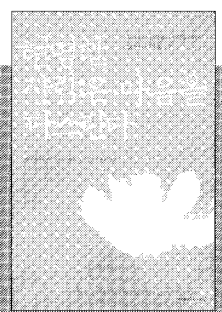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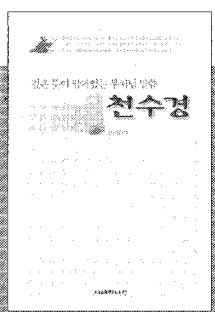


## 산성 할아버지의

# 이야기 천자문



본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다섯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습니까?  
천자들의 철학과 일화를 통한 곳다의 마음다스리기!  
담아난디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절,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진언, 윤회론 등 원문은 부처님의 지전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 값10,000원